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 만민중앙소식

이 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news.manmin.or.kr

등록번호 : 다-1840(1989. 7. 12.)  
편집처 및 발행소 :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 이재록  
인쇄인 : 김신경  
편집인 : 빈금선

서울 구로구 구로동 851번지 ☎02-818-7000  
e-mail : manminnews@hotmail.com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제377호(구397호) 2008. 11. 9.(격주간)

##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철야를 마치고 귀가하는 성도들

깊어 가는 가을과 함께 만민의 기도 향기도 무르익고 있다.  
만민기도원(원장: 이복남) 주최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42일 동안 열리는 '특별 다니엘 철야' 기도회가 은혜와 감동 속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별 다니엘 철야'는 한 해가 저무는 시점에 2회 연속으로 '가나안 성전 건축', '영으로 온 영으로', '사명 감당' 등 세 가지 기도 제목 아래 특별히 기도한다.

만민의 성도들은 '특별 다니엘 철야' 외에 매일 밤 열리는 '다니엘 철야'를 통해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며 빠른 신앙 성장을 갖는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 기도하므로 응답받은 것처럼(단 10장) 본교회를 비롯, 전국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만민의 성도가 참여하는 '다니엘 철야'는 우리 교회를 이룬 저력이며,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 칼럼 Column 믿음의 뿌리

일본의 화산 지역에서는 한겨울에도 푸른 나뭇잎과 오렌지 등 열대 과일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나무가 뿌리박은 그곳의 높은 지열로 인해 겨울철의 바람을 능히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악한 주변 환경을 타하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사계절 내내 푸른 나무와 같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삽니다.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로마서 11:18)

글 · 이재록 목사  
한국경제신문 연재 '생명수' 칼럼에서

### 추수감사주일 기념예배 및 성례전

성경에 기록된 3대 절기 중 하나인 수장절(출 34:22), 곧 추수감사절 기념예배가 11월 16일에 있다.

대예배 때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준비된 그릇」(눅 10:2)이라는 말씀을, 저녁예배 때에는 「감사」(요 6:53)라는 말씀을 증거한 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성찬식을 집례한다.

한편, 여선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본당 및 각 성전마다 수많은 곡물류, 근채 및 엽채류, 과일류로 정성껏 단을 장식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 해외선교 소식

- 10. 21.~11. 26. 중남미 7개국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순회 출장 (강사: 이재호 목사)
- 11. 9. 필리핀 선교사 파송식(대상: 김주범 목사)
- 11. 9. 야마가타 만민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손수건 집회(강사: 이희선 목사)

- 11. 9. 케냐 나이로비 만민성결교회 창립 8주년 기념예배
- 11. 14, 19, 22. 벨로루시 및 우크라이나 손수건 집회(강사: 미하일 모글리스 박사)
- 11. 16, 17. 인도 첸나이 창립 4주년 기념예배 및 목회자 세미나(강사: 이미경 목사)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 예배	1부 · 오전 10:0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비율·마리아]	오후 8:00
	2부 · 오전 11:30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 오전 11:30
새벽예배	새벽 5:00		저녁 · 오후 1:30

#### 교회 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오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국 ☎ 02-818-7391~5)

#### 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보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51-3845, 818-7309
- 온라인 번호(예금주: 위성영)
- 국민은행 362-21-0201-106
- 우리은행 072-255732-02-201
- 농협 100072-52-061722
- 우체국 012419-02-047269



#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 14:12-14)

##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께서서는 가을 들판에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맺히듯 우리도 가정과 일터, 사업터 등 있는 곳곳에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으며 만사형통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육의 한계 속에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요. 바로 스스로 삶의 문제를 힘겹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 주시고 대신 일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위해 친히 일을 이뤄 주실까요?

### 1. 말씀의 약속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할 때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을 이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여 믿음으로 구하느냐에 따라 응답의 역사는 달라집니다(막 11:24).

요한복음 14:12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기사와 표적들이 수없이 나타나지요. 예컨대, 갖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되고 병어리가 말하며,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목발이나 휠체어 없이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는 표적이 무수히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26년 전 미약한 규모로 시작해 오늘날 8천여 지교회를 가진 초대형 교단으로 성장한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 결과입니다. 또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열두 번의 해외 연합대성회를 이루고, GCN(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과 각종 문서를 통해 세계 선교를 활발하게 이루며, 개척 때부터 기도한 이스라엘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3:2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위해 친히 일하시도록 그 비결을 터득해야 합니다.

### 2.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하려면

#### 1)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되 변개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은 우리 믿음과 의를 결코 저버리지 않고 공의와 사랑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흠도 점도 티도 없는 분이므로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믿음대로 응답하십니다. 온전한 믿음과 마음의 의를 이룬 만큼 정확한 공의와 사랑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신실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람 생각으로서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신뢰할 때 가능케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백 세에 아들을 낳은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의 의를 이루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내보였습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그에게 못별처럼 많은 후사를 약속하셨지만 20년이 지나도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를 보시고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대하 16:9).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구했는지요? 하나님은 절대 식언치 않고 어떤 일에도 후회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느냐에 따라 응답의 열매는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월이 흘러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응답의 열매도 온전한 것으로 받을 수 있지요.

자신이 생각한 시점보다 응답이 늦고 환경이 기도한 것과 반대로 되어도 변함 없이 믿음을 내보이는 자녀에게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며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려면 변함없는 진실한 믿음과 함께 마음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의 의를 이루지 못해 책망할 것이 있으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기 때문이지요(요일 3:21,22).

#### 2) 하나님 이름으로 영광 돌리고자 해야 합니다

부모는 어떤 자녀를 가장 사랑스럽게 느끼고 그들에게서 기쁨을 얻을까요? 가령 사고뭉치 자녀라면 부모의 아픔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어떤 일을 요청하기 전에는 자기 일만 하는 자녀라면 아픔은 되지 않지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부모님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돕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일까지 찾아서 부모 마음에 딱 맞게 잘해 놓는 자녀라면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에만 만족한다면 하나님 은혜도 그 정도에 그칠 뿐이지요. 그런데 어찌하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영광 돌리는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며 은혜와 능력을 더 부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명이든 사모하여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써 열매 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며 그때그때 성령의 주관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찾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힘이 되기 위해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사업터를 믿음으로 일구려는 마음 등 바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영광 돌릴 만한 열매가 나오게 하며, 그럴 때 매우 기뻐해 그에게도 영광으로 갚아 주시지요(요 13:32).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는데, 이는 마음 한편에 ‘내 이름’도 함께 빛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심이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보다 자기 생각과 경력에 기대어 그 열매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 3)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27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마련하기 위해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셨습니다. 이때 만일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지 않았다면 아무런 역사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기(약 2:22)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한 세겔을 머금은 고기를 예비해 베드로에게 잡히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뤄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방법과 지혜로써 행통하고 순종하게 이뤄 주시지요.

하나님은 명하실 때에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순종하여 행한 뒤에는 더 큰 영적 믿음이 주어지므로 다음엔 그보다 더 큰 일을 명하셔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1:19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신 대로,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일을 명하지 않았다 해도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등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즐겨 순종한 사람들은 자연히 영혼이 잘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든 일이 잘되고 행통하도록 범사에 친히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축복과 응답을 받아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소소한 일상의 감사가 365일 이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삶이 매우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자신의 삶에 축복이 찾아올 때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감사야말로 진정한 것이며,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성령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고난을 단지 고난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는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편집자)



# | 365일 이어지는 감사의 물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이 일어나자 찬양대를 조직해 군대에 앞서서 찬양하게 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바로 감사 찬양이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장식한다(대하 20장).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매를 많이 맞은 채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워졌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 옥 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행 16장).

악한 사람들 때문에 사자 굴에 던져질 위기에 놓인 다니엘은 그들의 간사한 속임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단 6:10). 결국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

이처럼 감사는 마음을 평안케 하는 안식을 가져올 뿐 아니라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기적을 낳는다. 자신

의 유익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사할 수 있다. 하지만 시험 환난 가운데 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적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절망적 상황 앞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끌어내리는 열쇠이다.

### 감사는 믿음의 증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하나님 역사를 보고도 현실이 조금만 어려우면 이내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반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순종했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무난히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가 굶은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므로

종국적으로 좋은 것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롬 8:28). 육의 부모도 자녀의 유익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거늘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못해 주시겠는가.

### 시련을 축복으로 바꾼 삶

선천적 기형을 갖고 태어난 사이먼이라는 소년이 있었다. 그의 키는 채 1m도 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은 그를 놀려대고 부모조차 그에게 무관심했다. 하지만 사이먼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은 영웅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자신을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이라 믿는다. 어느 것 하나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이는 사이먼이지만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 섭리를 믿었고, 그 믿음은 곧 감사에서 나왔다.

결국 사이먼은 그 작은 키로 인해 많은 사람을 구조하게 된다. 바로 자신이 말했던 영웅이 된 것이다. 영화 '사이먼 버치'의 내용이다.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오 놀라운 구세주' 등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은 화니 크로스비. 그녀는 94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9천여 곡의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어 시각장애인이 된 그녀가 찬송시에 담은 내용은 대부분 감사와 기쁨이다.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나는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하며 시력을 잃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고백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생을 감사의 삶을 영위한 그녀는 인생의 시련을 감사로 찾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을 이루길 기뻐하며 반드시 그를 축복된 삶으로 이끄신다.

크리스천이라면 끊임없이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은 사실이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것이다.

###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추수감사절' 정신

오늘날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성대하게 지키는데 이렇게 국가적 명절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성경 말씀대로 경건하게 생활하려는 청교도와 이미 형식주의적 신앙생활에 젖은 영국의 국교도 간에는 많은 신앙의 갈등이 있었

다. 영국의 국왕은 청교도를 용납지 않아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네덜란드로 건너갔다. 네덜란드에서의 생활은 고달프고, 더더욱 힘이 들었다.

이에 1620년, 힘들여 일해 번 돈으로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호를 구입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을 가게 된다. 그런데 미국 북동부 플리머스 연안에 도착한 그들의

대다수가 험난한 항해에 이어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갔다. 이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인디언들은 옥수수 등의 곡물을 가져다주고,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다음해, 풍성한 곡식을 추수한 청교도들은 첫 수확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예배를 드렸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대륙으로, 추위와 굶주림, 질병 등의 사선을 넘어 귀한 열

매를 얻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다. 그리고 인디언들을 초대해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 고기 등을 함께 먹으며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감사절을 보낸다.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유래이다. 이러한 청교도의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진 것이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첫 추수감사절을 보냈던 청교도의 정신을 상기해 범사에 감사함으로 축복된 삶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5335-542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2동 1323-12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7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1-387-0263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6-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8-618-6194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283-5004,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9-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8947-5989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리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1-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동2동 47-5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대동 742-4 ☎054)464-4512, 016-539-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1-602-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1-608-3037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2가 929-1 ☎063)223-9991, 018-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1동 250-3 ☎063)853-0675, 011-671-7191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770-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도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9-234-3719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 ☎02)995-9951, 0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필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31)781-9830, 017-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48-5 ☎02)489-3766, 010-6712-2073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158-5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동 465-4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27 ☎031)840-2906, 019-251-3149

# “감사는 축복의 화수분”

##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류순주 권사  
(마리아선교회연합회 연합부회장)

매일 삶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 간섭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어떨까. 흥국생명 텔레마케터 중 매월 성과 업적 1위를 고수하는 류순주 권사.

그녀는 2003년 입사한 뒤 줄곧 1등을 달리고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권유해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몹시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그 대신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녀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행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녀의 일을 책임져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니될 것도 된다’는 긍정적 고백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이 해 주는 기도를 받고 나갈 때 형통한 축복을 받아갔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축복 주시고자 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녀는 혹여 실적이 저조하면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그녀에게 포기란 없다. 끝까지 감사함으로 행할 때 반드시 채워 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여러 번 체험했다. 그냥 통화만 했을 뿐인데 큰 계약이 척척 성사될 때에는 친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될 때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라 고백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큰 축복의 열쇠임을 알게 한다.

##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하신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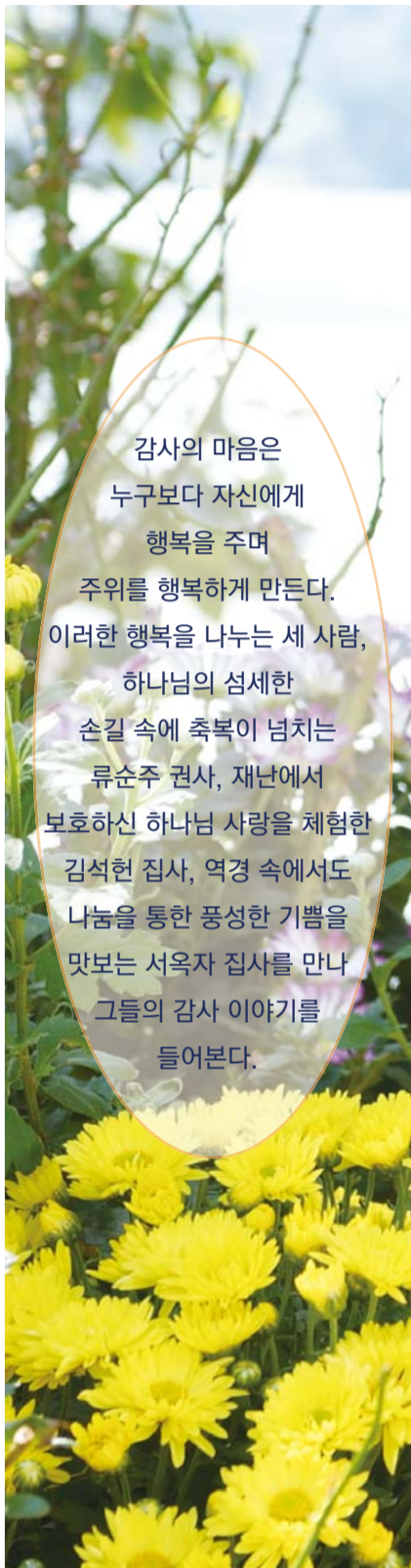
서옥자 집사  
(3세대 32교구 조장)

나눔을 실천할수록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매주 수요일, 우리 교회 부평 지성전에서는 조촐하지만 정겨운 ‘사랑의 식사 나누기’ 행사가 열린다. 80여 명의 어르신에게 맛깔난 음식을 대접하며 씩씩하게 대하는 서옥자 집사. 그녀는 먹거리 나눔 봉사를 6년째 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국과 밥, 나물, 부침개 등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노라면 마냥 행복하다.

8년 전,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소천했다. 워낙 자상한 남편이라 의지하며 살아온 그녀는 갑작스런 일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냈다. 자기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로 일관했다. 더불어 이웃사랑 실천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와 봉사를 함께하는 교구 식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두 딸을 건강하고 울곧게 키워주셨고, 때에 맞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시작한 나눔 봉사가 오히려 자신에게 진정한 감사를 알게 했다는 그녀는 이러한 기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감사의 마음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행복을 주며 주위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러한 행복을 나누는 세 사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속에 축복이 넘치는 류순주 권사, 재난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김석헌 집사, 역경 속에서도 나눔을 통한 풍성한 기쁨을 맛보는 서옥자 집사를 만나 그들의 감사 이야기를 들어본다.

## “재난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김석헌 집사  
(마산만민성결교회 1남선교회 기관장)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에서도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지난 10월 17일 밤 11시 반경, 김석헌 집사는 점포에 화재가 났다는 다급한 소식을 접한다. 그는 순간 ‘모든 것을 잃었구나’ 하며 망연자실했다. 현장에 도착하니 10대의 소방차와 사람으로 매우 혼잡했다. 그는 인파를 헤치고 점포 앞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놀랍게도 점포는 멀쩡했다.

점포는 한 건물에 택시회사와 함께 있었다. 건물 대부분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되어 있어 택시회사와



점포와의 간격은 불과 8센티미터 정도였다. 당시 택시회사가 전소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 3분. 점포에 불이 옮겨 붙기 직전의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소방차가 늦게 도착해 불길이 확산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불길은 점포로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 잠시 후 소방차가 도착해 진화작업을 했고 점포는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 직접 화재 현장을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켜 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올해 2월 23일 개업 후, 어려운 자금 사정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믿음과 성실로 일구어온 사업터를 하나님은 지켜 주셨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재난 속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에게 곧 다가올 추수감사절은 더 뜻깊을 것이다.

### 하나님의 권능 사례 모음

### 『희한한 능』 1서평

140X220 224페이지 11,000원



사람들은 기적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난관을 만날 때 기적을 간절히 바라며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최근 <우림북> 편집부에서 엮은 『희한한 능』은 그러한 관심과 호기심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이다. 20여 개국 70명의 놀랍고 흥미진진한 일화. 믿음의 사람 바울이 나타낸 희한한 능의 역사(행 19:11, 12)가 현 시대에도 똑같이 생겨나는 현장을 생생한 화보와 함께 체험 당사자의 육성으로 들려준다. 서점에는 질병 치료와 하나님의 살아 계신 역사를 기록한 간증집이나 신앙 서적이 많이 있다. 이들과의 변별성을 든다면 단순히 개인적 신앙체험을 서술한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직 의사들을 통한 x-ray 사진, 병원기록, 체험자들의 생생한 간증, 각종 화보는 이제까지 지극히 주관적이던 기독교 간증에 객관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책은 이미 세계적 권능의 목회자로 널리 알려진 이재록 목사의 선교 현장의 또 다른 기록으로 독자에게 현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아쉬움이 있다면 좀 더 깊은 영적 의미나 풍부한 사례가 실렸으면 하는 점이다. 물론 이재록 목사의 다른 저서들을 활용하면 이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으리라 본다.